

정지수(James) & 김지영(Joy) 2025년 4월 선교 소식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인사 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시엠립 다일공동체(원장: 석미자)는 캄보디아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국제 NGO단체입니다. 시엠립 다일공동체는 주 5회 약 550명의 어린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골 마을 어린이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엠립 다일공동체 센터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음악, 미술, 영어, 한국어,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 개발을 위해 암소 기증 사업과 모터배(motorboat) 기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엠립 도시에 기숙사를 운영해 지방 마을 학생들의 도시 유학을 돕고 있습니다. 다일직업기술학교에서는 뷰티 미용 재봉 미싱, 제과제빵, 한국어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청년들을 엄선해 한국에 계절근로자로 파송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개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매주 사역자들을 파송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시엠립 다일공동체에서 회계와 행정을 돕고 있으며, 주일에는 교회들을 방문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가 하는 사업이 많아서 매일매일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캄보디아에서 제가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Cheong Ji Soo
006-21-0932-729

지난 3월 25일에는 경기도 양평로타리 클럽 임원들이 방문해 쓰록뿌억 마을에 암소를 기증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미 2년 전에 기증한 암소는 새끼를 낳아서 다른 마을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시골마을에서 사랑의 나눔이 실천되는 것을 보니 너무 기쁩니다.



프놈펜에서 진행 중인 독서 모임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독후감을 모아서 책을 출판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는 4월과 5월이 가장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지영 사모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에 가서 쉬고 있습니다.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